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2월 15일 (제1284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하나님만 바라보라

목회 40년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多事多難)했구나 싶다. 돌아보니 좋은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참 많았다. 그러나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일도 있었다. 그중 내 가슴을 가장 아리게 하고, 쓰리게 한 일은 내가 사랑하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게 돌팔매질할 때였다. ‘아버지’라고 부르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낯빛을 바꾸고 나를 원수 보듯 할 때 많이 아팠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딱 맞는지, 원수가 집 안에 있다더니(마10:36)...

하긴 예수님도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으셨는데 뭘... 가롯 유다가 은 삼십 냥에 당신을 팔았을 때 얼마나 씁쓸하셨을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할 때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마도 채찍보다 그것이 더 아프셨으리라.

자고로 뒤통수는 팔 길이만큼 가까이 있는 자가 치는 법, 요셉의 뒤통수를 친 것은 그의 형제들이었고, 야곱에게는 그의 외삼촌이었으며, 다윗은 장인과 아들이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저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

그분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나를 배척하신 일도 없고, 내 뒤에서 뒤통수를 치시지도 않았다. 되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아플 때면 나를 찾아와 안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셨다. 내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의 길을 거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나보다 앞서가시며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겨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며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어 목마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필설로 다할까. 내가 백문백답(百問百答)이 예수요, 천문천답(千問千答)도 예수라 함은 흔들려 놀려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의 당연한 고백이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히12:2).

마르지 않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멕시코 집회 일정 후 바로 이어진 12월 산상집회. 그러나 목사님은 조금의 피로한 기색도 없이 동일한 능력과 기력으로 집회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주셨다.

“해외에 나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때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Pastor Lee, 당신에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나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오직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목회 4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

다. 항상 말하지만, 기도가 끝난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병든 영혼입니다.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방성대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사막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방성대곡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했더니 사막에 샘물이 터졌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 브닌나의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던 한나는 그 괴로움에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부르짖기를 그치지 않았더니 그녀의 태를 담았

시고 하늘 문을 열어 태양 빛을 비취주셨고, 단일 교회 역사상 메인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역사적인 성공을 목도케 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죽을병으로 인해 눈물로 애통하며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건강을 돌려받고, 사업이 빈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온갖 수모를 견디며 통곡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다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 간증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2024 12월 산상집회 광경(12월 9일~12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나 역시 매일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며, 집회가 있을 때는 하루 7, 8시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40대의 기력을 달라고,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일으켜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안녕과 평화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마르지 않는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은 오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도 기도이기에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고 아예 기도원 벽에 새겨넣은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사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또한 유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자 면벽한 채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수명을 15년 연장해주셨고 일영표의 해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저 또한 1992년 메인스타디움집회 때 6개월을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전도단 건물에 거거하며 날마다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집회 당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메인스타디움에 도착하여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소비할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애통하는 기도

에 응답하사 비를 멈추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거짓 말을 하실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지 않는 능력의 원천?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전대미문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비결? 역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다. 최소 하루 4시간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기도원. 반드시 전대미문의 기적을 맛보는 간증들이 쏟아지리라!

한은택 목사



건강체조



하루 최소 4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해주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6)

고집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장성에 있는 우리 기도원에 가면 성전 외벽에 귀 모양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셨습니까? '귀명창이 명창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야 명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소리꾼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주님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사43:8),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4:23)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귀가 있어도 귀를 닫고 아예 안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귀명창이 명창이다
귀를 크게 열어라

경청(傾聽), ‘남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인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끌려서 듣는 말도, 듣기 싫은 말도 경청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붉은 색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13:16)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12:15)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집불통(固執不通)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불통인 줄 압니까? 막혀서 그런 겁니다. 귀가 막히면 생각도 막히기 때문에 세상과도, 사람과도 통할 수 없는 겁니다. 동백경화에 걸린 거지요. 그런 자의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는 도약으로부터 아히멜렉이 도망 중인 다윗에게 먹을 것과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불러 추궁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삼상22:14).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의 귀는 닫힌 상태라 안 들었습니다. ‘소귀에 경(經) 읽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은 물론 그의 가족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런 사울의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앞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솔로몬 시대의 건축으로 인한 고역과 짐이 힘들었으니 이제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생각해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같이한 연로한 신하들에게도 묻고,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기’(잠15:22) 때문입니다. 연로한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이 만일 오늘날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저희가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왕상12:7)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 리고는 ‘아버지 때보다 더 무겁게 하라’(왕상12:14)는 젊은

은 사람 들의 말 대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에 여호와께서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좀 배웠다고 어른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못 배웠어도 그들이 살면서 체득한 경험은 교과서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장(戰場)에서는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하고, 사막에서는 늙은 낙타를 타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 스승의 말, 목사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유다 왕국의 10대 왕, 웃시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더니(잠18:12), 급기야 그는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해서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대하

26:16). 이에 아사랴를 비롯한 제사장 80명이 왕을 막았습니다. 아사랴 제사장이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대하26:18)라고 말했으나 그는 이미 도가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팔팔 끓어 넘칠 때 손대면 안 됩니다. 성경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잠9:8)고 했습니다. 웃시야는 아사랴의 말에 되레 노를 발하며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그는 여

생을 별 궁에서 외롭게 살다 죽었습니다(대하26). 아합도 볼까요? 아합과 이스라엘이 길르앗라못을 놓고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미가야는 아합에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미가야의 말대로 거기서 죽습니다.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왕상22). 당대에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의 교만함을 나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에 콧방귀 쏘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단4). 세례 요한의 말을 무시한 헤롯, 예수님의 충고를 무시한 가롯 유다... 귀가 막힌 자들, 고집으로 불통인 자들의 마지막은 이처럼 다 비참했습니다. 귀가 막히면 도적이 들어올 때 개가 짖어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귀명창인 자들은 정말 명창이 되었습니다.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일을 실용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십부장과 오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장인의 말을 경청하고 합당하게 여겨 그대로 실행했습니다(출18:24). 그래서 명실공히 훌륭한 행정 및 사법조직을 갖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출18:13~24).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도 요셉의 말을 들어 애굽을 최강국, 최부국으로 세웠습니다. 바로는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의 해몽도 듣고, 해법도 들어 풍년 시절에 잉여분을 저장하여 닥쳐올 사태에 대비토록 한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 한 것도 아니고 일곱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왕하5:13)라는 종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고,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 말이나 다 들을 건 아닙니다. 아침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잠29:5)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꿈의 쓸개를 빼내려고 입에 달달한 사랑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솔로몬에게 그의 첩들이, 삼손에게 들릴라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고로 달콤한 것이 몸에는 해롭고, 입에 쓴 것이 몸에는 이롭습니다. 쓴 것을 삼킬 때 몸이 좋아지듯,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내 삶을 옳고 바르게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잠28:23).

칭찬 속의 아침을
조심하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의인의 행통함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시1:2)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귀와 눈이 열린 자가 복 있는 자이고, 그런 자는 만사행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가 닫힌 엘리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어린 솔로몬이 되십시오. 귀가 있으나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귀를 열어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자고로 의인(義人)도, 대인(大人)은 귀가 큰 자임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당신의 그림 중에서 최고 작품은 어느 것입니까?’라고 물으니 ‘내 최고의 작품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라고 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고, 힘들고 험악하고 불행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가장 행복한지를 모르는 것이다

오늘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기 때문이요, 성령의 충만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것이다(롬8:1~2).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행1:8).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는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나가 전하게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변

했는가? 칼 앞에 두려워 예수를 배반하며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한번 설교할 때 삼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권세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9)고 담대히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떠한가? 여전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세계가 마치 당신의 앞마당인 것처럼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번에도 저 연세에 호주와 멕시코에 예수를 전하시며 성령의 불을 던지고 오셨다. 우리 또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비바람이 쳐도 기도하고, 핍박이 와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엘리야처럼, 한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오늘이 가장 행복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응답, 기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전 9:4). 할렐루야!

정영국 목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만남의 축복

얼마 전 우리나라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태를 직면했습니다. 대통령이 갑작스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이내 국회의사당에 헬기와 차량을 통해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되었고, 대기하던 시민들과 국회보좌관들은 사력을 다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아내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태가 벌어졌습니다. 말로만 듣고 영화로만 보던 역사의 한 장면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재연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멀리 멕시코에 계셨지만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할까 봐 지체 없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앞날을 위해 기도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 무겁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정말 몇 시간 후 계엄령은 해제되었고, 군인들은 철수하며 사태는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은 안심하고 걱정 없이 소고기를 먹었으며, 다미선교회가 특정한 날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여 한국사회와 기독교계를 미혹하고 어지럽혔을 때도 목사님은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도 성도들이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셨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양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덕분에 광야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서 주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최성경 전도사

:: 성도간증 ::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시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수술하고 퇴원하는 일은 예전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나 이번만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2024년 10월 말에 어머니가 팔 골절로 수술하시게 되었는데, 팔이라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고관절을 다쳤으면 걷지도 못하니 조심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퇴원하신 다음 날,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렸건만 나이가 드시니 기력이 떨어져 어쩔 수 없나보다 체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간호사가 아버지의 검사에 서명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을 방문하여 서명 후, 청주에서 왔는데 아버지의 얼굴이라든가 잠시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멀리서 오셨으니 잠시 면회하라고 하여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처가에 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반아주질 않았습니다. 음식은 돌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하룻밤을 자고 청주로 올라오는 2시간 동안, ‘별거 아니야. 수술하고 2~3달 정도 요양하시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 정 안되면 요양원에 모셔야지.’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초조, 무서움, 두려움, 가슴 답답함, 무기력, 떨림, 온갖 나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도저히 마음을 통제할 수 없던 저는 고속도로에서 2시간 동안 방언기도를 하고, 소리도 지르며 제어되지 않는 마음으로 청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온갖 나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 밤새워 뒤척이다 꼬박 밤을 지새우고 출근하게 되었고, 여전히 불안과 초조, 무서움, 가슴 답답함, 무

기력, 떨림, 온갖 나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마음은, 왜 제어가 안 되지? 왜? 왜?’

제정신이 아닌 채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 아침 10시 30분쯤 갑자기 ‘나, 이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자살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저를 엄습하였습니다.

순간 안 되겠다 싶어 청주예수중심교회 일오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대뜸, “목사님, 저 이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전화를 받자마자 그런 소리를 들어 황당하셨을 겁니다. 일년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제가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했으니... 일오삼 목사님께 “불안과 초조, 무서움, 두려움, 가슴 답답함, 무기력, 떨림, 온갖 나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일오삼 목사님께서 “100% 귀신이 잡은 거요!”라고 하셨고, “저 이리다가 자살할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운전 중이시던 목사님께서 차를 세우시고 간절히 기도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순간 자살의 충동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마음들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생각으로 있던 차에 그날 저녁 6시가 다 되어 일오삼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묻는 일오삼 목사님의 물음에 저는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오삼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장례식장, 응급실, 중환자실은 보이지 않는 영이 많이 역사하는 곳이며,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러한 악한 생각들을 통해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온다’고 하시곤 다시 강하게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일오삼 목사님의 강한 기도를 받는 순간 먹구름 사이에 한줄기 강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으며, 저 스스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일오삼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2~3일 더 기도해주셨고, 지금은 저를 힘들게 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예전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귀신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그때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성령충만을 받아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늘 피상적으로 알던 귀신의 존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예수중심교회 정한섭 집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광경



피델 목사 부부와 함께



멕시코 사비나스의 로헬리오 목사

엠마누엘(Emmanuel) 목사의 간증과 마르힐(Margil) 목사, 오스칼(Oscar) 목사 등과의 만남은 시작부터 우리를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다. 원래는 이를 후 정식 세미나와 집회가 두 도시에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엑토르(Héctor) 선교사를 비롯한 현지 목회자들은 목사님을 가만두지 않았다. 당일 저녁 바로 엠마누엘 목사 교회에서 설교하셨고, 이튿날 오전에는 과달루페(Guadalupe) 시장 관저를 방문했다. 저녁에는 마르힐 목사 교회에서 설교, 그리고 이튿날 오전 세미나와 저녁 집회, 베니토

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개의 새끼는 개요, 소의 새끼는 소입니다. 사람의 자녀 역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역시나 앞의 질문에는 자신 있게 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는 대목에 이르면 멈칫한다. 그리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하나님’ 한다. ‘어찌 내가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하는 뿌리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그럴 때 목사님은 재차 강조하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였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의 형제라고 하시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신분을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찾아간 곳은 한국에 다녀갔던 피델(Fidel)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였다. 그는 목사님께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저는 한국 기도원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원 대성전 앞에 만들어놓으신 당신의 무덤을 가리키시며 이곳에 모든 거짓을 죽여서 묻고 가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그의 사택에서 만난 피델 목사 아내의 간증은 더욱 놀라웠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완전히 율법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 다녀온 후,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치마도 입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했지요. 지금은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남편의 목회도 지원하며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른 거실과 정원을 갖춘 저택에서 피델 목사는 마리아치까지 불러 목사님과 우리 일행을 위해 최고의 만찬을 베풀어주었다. 마리아치와 함께 찬양하며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표정이셨다.

마지막 날에는 사비나스의 로헬리오 목사 교회를 방문했다. 차로 약 1시간 정도 간다고 했다. 과달루페 경찰경호대 차량이 약 6대의 이동 차량 앞뒤로 경호하며 가던 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파스가 나서 멈췄다가 다시 가는데 이번에는 도로 정체가 시작되었다. 경호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해치고 도로의 차량들을 이동시키며 전진하는데 그것도 여의찮으면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인도했다. 그렇게 한참을 헤쳐 나가다 보니 도로 한 가운데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가로로 전복되어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있는 사고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크레인으로 전복된 트레일러를 치우는 작업을 힘겹게 하고 있었다. 경호 차량이 아니었으면 긴 정체가 계속되는 도로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뻔한 것이다. 사비나스 지역에 들어서자 경찰 장갑차까지 포함 총 6대의 경호 차량이 달라붙었다.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혹자는 007 영화를 보는 줄 알았다고도 했다.

로헬리오 목사는 전국에 28개 지교회와 아프리카 지역과 네덜란드에도 지교회를 갖춘 대형교회로 성장해있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에 가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무지렁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영성세미나 참석 후 완전히 눈을 떴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오늘의 교회를 일구었다고 간증했다. 교단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헌신하며 진행했던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가 머나먼 나라 멕시코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은 목사님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기쁨과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

한은택 목사

:: 생명의 말씀 ::

부림절의 은혜

연말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복잡해진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 거룩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마다 자기 정치 편향적인 기도를 드리기가 십상이다. 그런데 역대 하 7장 14절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구국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 백성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말씀 말이다.

모든 공의의 기준이시며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일이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우리 교단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그날의 메시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최고선’이다.

성경에는 앗수르를 비롯한 제국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활용하실 때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리고는, 영원할 것 같아 보이던 세속의 제국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나는 역사는 없다(요15:5). 하늘에서 이뤄진 그분의 선택하신 의지와 뜻이 이 땅에서도 구현되기 마련이다. 다만,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다.

에스더서를 읽는 매력이 바로 그것이라.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

았다.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부림절이라는 해방의 절기가 탄생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셨고, 절대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진짜 주인이 존재하시며 일을 운행하신다(히11:3). 그분의 의지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위에 있으며 더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로운 악행도 역사 가운데서 막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승낙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위해 안 막으시는 것일 뿐이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해야 한다. 한반도 땅에도 부림절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면서 말이다.

송직화 목사

내 주만 위해 살리라

주에!
나의 진실
나의 기도 들으소서
진실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받으사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시련이 오고
환난의 미바람 들어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외치다
내 주만 위해 살리라

봉우